

서울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놀거리 분야...초대형 '팝업 놀이터' 오픈

서울시-현대자동차-세이브더칠드런,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 '지구를 지키는 놀이터'

서울시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채롭고 재밌는 놀거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가득 담은 '지구를 지키는 놀이터'를 21일 11시~16시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3일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현대자동차,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어린이의 놀거리 분야 사업을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지구를 지키는 놀이터'는 서울시가 두 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처음으로 마련한 '팝업 놀이터'이다.

'지구를 지키는 놀이터'는 기후변화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의 활약을 담은 5개 컨셉(오늘의 영웅 입장, 영웅 도전 시작, 영웅 각성, 영웅 탄생, 영웅 파워 UP)으로, 공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놀거리로 구성된다. 이날 하루, 현장을 찾는 어린이 누구나 기후변화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 된다.

여러 개 장애물로 구성된 총 30m 길이의 대형 에어바운스를 달리면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에 도전해보는 챌린지런은 '지구를 지키는 놀이터'의 하이라이트다. 바로 앞에 있는 거대한 5톤 잉바디 트랙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인형뽑기 기계 속 크레인이 되어 해양쓰레기 줍기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며, 주위 울린 해양쓰레기 속 짝꿍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놀이터는 11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며, 12시부터 매 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버블쇼'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해치(서울시 마스코트), 폴리와 엠버(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사진찍기와 대형 젠가 놀이터도 마련된다. 14시에는 인기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초청, 유튜버와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2045년 미래의 기상캐스터 숲속 챌린지' 이벤트를 마련하여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바다우리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DIY 북극곰 만들기 체험을 통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지구를

지키는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만들기 체험은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친환경 재생 페이퍼 소재로 만든 '포레스트 미로'를 탐험하고, 어린이가 직접 인형뽑기 속 크레인이 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도전하는 'H-팝업트릭 인간 인형뽑기' 체험도 운영한다. H-팝업트릭 인간 인형뽑기는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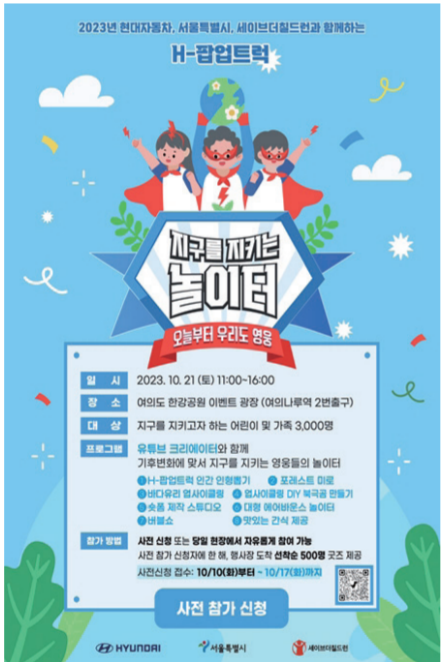
30M 초대형 규모의 기후위기 극복 챌린지런으로 구성된 에어바운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든든한 간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이 편하게 쉬 수 있도록 감성 캠핑카와 안락한 빈백이 있는 쉼터 공간도 마련된다.

푸드 에너지 충전소 간식은 12시 30분부터 각 500개, 4회 총 2,000개를 제공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신청과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참가 신청자에 한해, 행사장 도착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은 10월 17일까지이며, 온라인 사전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생복지재단 95주년 기념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로, 6·25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그의 부인인 일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가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고아 4천 명을 길러낸 곳이다.

대통령은 윤치호 전도사와 윤학자 여사가 이곳 공생원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4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것을 언급하며, 국경을 초월해 타국의 아이들을 길러낸 윤학자 여사를 비롯해 지금도 노력 중인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생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마치고 나서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합창단 아동들과 재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김황식 前 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욱 목포시장을 비롯한 전국 사회 복지단체장 및 공생복지재단 직원 등 500여 명과 에토 세이시로(衛藤藤士郎) 자민당 중의원 의원, 쿠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공사 등 일본 측 관계자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연장 운영

풍성한 아카이브 자료 전시장 곳곳 배치 관람객 호평

전남도립미술관은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 전시 기간을 오는 11월 12일까지 2주 연장 운영한다.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전시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남도민과 전국 곳곳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에 답하고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8월 17일 시작된 특별전은 9월 말 기준 약 3만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견희컬렉션 지역순회전 사업의 일환이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고(故) 이견희 상성그룹 회장이 보여준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견희컬렉션 특별전으로, 지난 2021년 첫 특별전에선 도립미술관이 기증받은 19점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번 전시에선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기증작까지 폭을 넓혀 총 43명의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는 한국 근현대 작가들이 표현한 그림의 주제와 작가의 노트에 쓰인 말에 흐름을 따라가 세 개의 주제로 나눠 작품을 소개한다.

각각의 주제는 작가의 에세이집이나 화문(畵文)집의 구절에서 선별, 발췌한 것이다.

창작의 고통과 희열이 담긴 작가의 글을 통해 관객이 작가의 사상(詩想)과 예

술적 영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장에는 작품뿐만 아니라 풍성한 아카이브 자료를 곳곳에 배치해 관객의 이해를 도왔으며, 전시장마다 주요 작가의 글귀를 만나볼 수 있도록 연출했다.

이런 연출에 대해 '작가의 노트에서 발췌한 글과 그림을 함께 보며 작가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작가와 작품을 한결 더 이해할 수 있는 전시' 등 관람객 호평이 이어졌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한 고 이견희 회장의 숭고한 뜻을 기려 마련된 전시인 만큼 그 뜻을 전시 연장을 통해 도민, 전국 관람객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권은 현장 구매와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배/기자



경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부산시의회 '온천천연구포럼' 10일 간담회 개최

온천천, 국가하천(배수영양하천) 지정에 온 힘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온천천연구포럼(대표 안재권 의원(연제구1,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온천천 국가하천 배수영양하천 지정 추진 및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방안'간담회가 지난 10일 17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재권 대표의원을 비롯한 온천천연구포럼 회원 의원(김형철, 박종목, 서국보, 송우현, 윤일현 의원)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관계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단체는 지난해부터 간담회와,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과 통합관리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다.

간담회에서는 하천별 일부개정(23.8.16)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온천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추진을 강조했다.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양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하천으로 온천천 유역 저지대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집중호우 때 온천천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따른 도심 하천의 안전 관리 강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간담회 사회를 맡은 온천천연구단체 간사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과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온천천에 대한 논의가 치수와 친수공간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 집중 강우가 쏟아질 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심 하천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특히 온천천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3개 구(금정, 동래, 연제구 등)로 나뉘어 진출입로 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하천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관리 체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온천천연구단체 대표 안재권 의원은 "온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선정되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부산시 정책으로 잘 다듬어 하천별 관리 대책과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온천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모듈러 교실 점검 등 현장 방문

청구중고 모듈러 교실 시설점검 및 세계시민교육센터 방문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6일, 청구중고에 설치된 모듈러 교실을 찾아 학습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모듈러 교실은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 공장에서 건물을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해 빠른 설치와 해체, 이동이 가능해 학교 공사 중 대체 학습공간 확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지역의 27개 학교에 설치돼 있다.

내·외부 시설을 꼼꼼히 살펴본 교육위원들은 "일반 교실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화재 예방이나 실내 공기 질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동욱 교육위원장(북구5)은 "모듈러 교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임대-공급을 통해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학습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교육위원회는 북구 복현동에 위치한 세계시민교육센터와 글로벌교육센터를 함께 방문해 체험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 재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제도 신설 촉구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추가제도 신설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가들이 현재의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에만 3~4월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거의 매일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해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6~7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 등 대책을 발표했으나 2023년~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이거나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남영숙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 비율 향상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영비 지원, 비보험작물 보상, 생계비 추가지원 등 영농회복과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집행부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근수/기자



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영천,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 대상 기관에 대한 학교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종전 조례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대한학교를 추가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하여 대한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한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의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 18일부터 10일간



봉화군의의회는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봉화군의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 제정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택시 기본차량 연장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등 총 9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관내 28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의 폭넓은 대화와 현지 여론 수렴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

업추진에 따른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희 의장은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은 올해 봉화군에서 추진해온 주요시책 및 건설사업에 대해 연초 계획한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올바르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섬주민 돌봄 위한 병원선 취항식 참석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 더불어민주당, 목포1)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월 16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열린 전남511호 병원선 취항식과 800만 관광객이 다녀간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등 현지의 정황을 점검했다.

새로 취항하는 병원선 '전남511호'는 여수, 고흥, 보성, 강진, 완도 등 5개 시군 약 4,0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치과, 한의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진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등의 의료시설과 의료진들을 위한 식당과 숙소 등의 시설과 초음파 진단기, 심전도기, 방사선 장비 등 27종의 진료 장비를 갖추고 있다.

취항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전남511호선의 취항으로 섬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응급의료, 전문진료, 예방·재활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

해 의료접근성이 약한 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이어 오는 31일에 폐막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방문해 올해에만 국내외 관광객 800만 명이 찾은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폐회까지 박람회장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강연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학교와 도의원과의 협치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0월16일에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2023 안산 단설유·초등 교육행정실장협의회 연수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행정실장 협의회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가치에 대한 이해와 학교현장의 효율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 안산 단설유·초등 교육행정실장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할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경기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권이 있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감시 기관으로서 권한과 이를 위해 매년 1회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 또는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다"라며 행정사무조사·감사, 서류제출권에 대한 설명을 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안산,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학교행정실장과 도의원의 협치를 통해 학교의 긴급한 사항들을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학교 현장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노력, 제28회 부국제서 빛나다...3개 작품, 6개 수상 영예

부국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 진출한 3개 작품, 총 6개 수상 <해야 할 일>(23년 지원작)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 올해의 배우상 <장손>(22년 지원작) KBS독립영화상, CGK촬영상, 오로라미디어상 <막걸리가 알려줄거야>(21년 지원작) 오로라미디어상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 세편이 지난 13일 폐막한 제28회 부국제영화제에서 총 6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콘진의 제작지원작들은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국내 독립영화 최선작을 선보이는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 진출했다.

2023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 <해야 할 일(감독 박홍준)>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과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했다. 2022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 <장손(감독 오정민)>은 'KBS독립영화상'과 CGK촬영상, 그리고 오로라미디어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2021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투자지원작 <막걸리가 알려줄거야(감독 김다민)>는 오로라미디어상을 수상했다.

3관왕을 수상한 <장손>의 오정민 감독은 "영화를 완성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경콘진 제작지원이 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 수 있게 도와줬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선정한 플러스엠상과 올해의 배우상(장성범)을 수상한 <해야 할 일>의 박홍준 감독은 "<해야 할 일> 제작에 참여해준 팀원과 영화를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야 할 일'을 찾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미디어상을 수상한 <막걸리가 알려줄거야>의 김다민 감독은 "시나리오 기획개발부터 제작지원에 이르기까지 경콘진의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 덕분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다양성영화 지원을 통해 경기도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영화제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79편의 작품을 제작지원 했으며 올해는 211편 접수, 최종 9편을 선정해 지원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안양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진행과정 보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의회상임위원회 안양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으로 진행과정을 보고 받고 하기 위해 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 강연진 팀장, 담당자하고 면담을 가졌다.

안양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도비확보를 통하여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유 위원장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이 사업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지상에 어린이공원 및 경로당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갈산어린이공원 조성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평촌더샵아파트 입주 및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등으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되어 어린이공원 지하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수동천 지역주민 민원해결 나서

포천시 금동리~연천군 초성리 구간 수동천 수질 검사 및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5일, 연천군 청산면 연두개울 상인들로부터 인근 수동천 수질검사 및 개선과 관련 집단 민원을 접수하고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연천군 환경보호과, 포천시 관계자, 지역 주민들과 현장 확인 후 수질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어 13일(금), 연천상담소에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수동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하천 폭 50 ~ 90m로 발원지는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부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구간으로 총 유역길이 15.22km 이다.

수동천 유역 내에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206개소, 폐수배출시설 1개소, 축산농가 39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로 인해 수질 오염에 대한 염려와 주민 요구 사항이 있어 윤종영 의원은 수자원본부에 검사를 건의하게 됐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약 20여일 조사 기간을 걸쳐 시·군 자료 분석 및 현장 조사 병행하여 유역 현황, 수질오염원, 환경기초시설, 주요 지점 수질 실태 등을 조사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육안 상 수질상태는 양호 하며 수질상태 확인을 위해 채수 후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수질 환경 기준 만족한 상태이다.", "수중 자갈 등에서 부착물 확인 됐고 부착물은 수동천 상류(포천)와 하류(연천)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견 됐으며, 부착물질의 성분 파악을 위해 시료채취 후 성분 검사 의뢰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수원시 대유평 화장실, '제25회 아름다운화장실 大賞'서 은상

수원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28차례 수상 쾌거

수원시 '대유평 화장실'이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제25회 아름다운화장실 大賞(대상)' 공모에서 은상(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장안구 정자동 대유평공원에 위치한 '대유평 화장실'은 돌을 활용해 외관을 만들어 공원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공중화장실이다.

대유평공원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와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좋으며,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또 화장실 옆 직원 휴게실에 환경미화원이 상주,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화장실 입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음성안내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화장실에는 감지식 센서 전등, 안전 손잡이,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을 위해 유아용 세면대, 대변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 또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이 언제나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이번 수상을 포함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28차례 수상하며 '명품 화장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1회 공모전(1999년)에서 '광고산 반딧불이 화장실'이 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광고중앙공원 화장실'(2015년), '미술관 옆 화장실'(2020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금상은 3회, 은상 9회, 동상 9회, 특별상 4회에 이른다.

팔달산 기슭 전망 좋은 화장실, 송죽동 만석공원 화장실, 광고신도시 헤링공원 화장실, 광고 여반레비 화장실, 해우재 공중화장실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수원특례시가 되겠다"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시민안전모델 구축 '맞손'

최대호 시장 "경찰서와 신속·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범죄에서 안전한 도시"

안양시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17일 오전 9시20분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양시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안양시의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긴급 범죄 발생 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 관제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시설을 확충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고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 개최

13일, 위원 19명 위촉...사업 계획·추진 사항 보고



고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 모습

고양특례시는 지능형(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13일 협의회 회의와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양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이정형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능형(스마트)도시 서비스 유관부서장, 시의원, 전문가 및 시민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능형(스마트)도시 건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 기반시설의 인수인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 보고 및 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를 진행한 뒤 ▲거점형 지능형(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고양 덕은지구, 장항지구,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풍동2지구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스마트) 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자문을 실시했다.

이정형 위원장은 "국제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는 기후 환경문제에 대응해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며 "협의회가 고양시, 사업 시행 주체와 힘을 합쳐 지능형(스마트) 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2023 성남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10월 21일 개최

'성남시 50년, 100년까지 같이가게-반(려)짝(공) 반짝 가을축제'

성남시는 성남시청 광장에서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23 성남시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성남시 50년, 100년까지 같이가게-반(려)짝(공) 반짝 가을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성남시 시승격 50주년을 연계하여 반려산업과 4차산업을 융합한 팻테크 산업 홍보를 통해 반려산업과 4차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동물보호 변천사 사진전 ▲팻테크

산업 홍보부스 ▲반려동물 미용·마사지 체험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 체험 ▲반려동물 인센네킷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반려동물 건강상담과 행동상담이 현장에서 진행되며 반려산업 플라마켓을 통해 다양한 반려용품을 접할 기회도 제공된다.

무대행사로는 ▲특수동물 강연 ▲반려동물 레크레이션 ▲반려동물 뽀내기 대회 ▲반려견 기다려대회 등을 진행하여 특수동물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인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행사장에 반려견 간이용이터를 마련해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돌봄센터 부스에서는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살리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활동을 벌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화창한 가을을 맞이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가을을 즐기며 각종 최신 정보도 얻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100만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위한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간담회 개최



100만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간담회 모습

화성시가 12월 100만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간담회'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한상업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6명 등이 참석해,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완료된 제2차 화성시 먹거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참여해, 화성시 먹거리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제안과 다양한 먹거리 정책사업 발굴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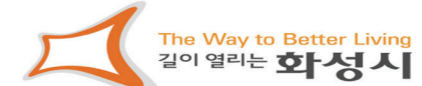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역 결과 수립된 먹거리계획 비전과 5가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먹거리 정책사업 50여 가지 중 친환경농업인 육성(인큐베이션), 교육연계 미래세대 식생활 교육 확대, 화성공간 지원정책 등 중점 추진사업

17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먹거리 정책이 화성시민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먹거리계획 마련은 100만 화성시민에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5개 전략목표를 통해 100만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 미래세대를 위한 내실 있는 먹거리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안산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1만 7천명의 뜨거운 함성 속 막내려

안산에서 준비한 버스킹 등 부대행사에 3만 8천여 명의 관람객 몰리며 큰 호응

안산시는 인디음악에 대한 관객의 뜨거운 함성과 페스티벌 깃발이 안산 와-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열린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인뮤페 202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인뮤페 2023'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대면행사임에도 공식행사에 1만 7천여 명, 안산시가 준비한 무료 부대행사에 3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 성공 신화를 썼다.

행사 첫날에는 이승환밴드, 올라온더 밴드 LUCY, 인디계 신화 크라잉넛, 둘째 날에는 살아있는 전설 전인권밴드와 인디신의 만형 데이브레이크, 인디오디션 프로그램인 인디스텀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터치드 등이 가을밤을 수놓았다. 마지막 날은 '웨이백홈(Way Back Home)'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SHAUN(손), 오디션 프로그램 황태자 이무진 등이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또한 우수 뮤지션 발굴을 위한 '인디스텀스 2023'의 결선 경연에서는 더 픽스(THE FIX)가 우승을 차지했고, 공식 행사 중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EDM 오픈 스테이지를 와-스타디움 중앙광장에 마련해 관객의 흥을 돋웠다.

최정부/기자



안산시 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의 결선 경연 모습

용인특례시, 생활개선회 성과 전시...여성 농업인 실력 뽐냈다

지난 14·15일 농촌테마파크 국화축제서 규방공예·전통 음식 등 선보여



용인특례시는 한국생활개선회인시연 협회가 지난 14일과 15일 처인구 원삼면 농촌테마파크 종합체험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그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생활과학기술교육 성과를 소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규방공예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저장식품연구회, 백옥쌀 가공연구회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전통 침선 기법을 활용한 생활문화 예술품,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음식, 전통 장과 장아찌, 백옥쌀로 만든 다양한 음식과 빵류를 선보였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협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2회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전국 유일의 여성 농업인 합창단인 한국생활개선회인시연협회 합창분과가 초청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이들은 오는 11월 3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도 초청돼 공연을 펼치고 6일엔 용

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성과발표회도 개최해 기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그간 생활과학기술교육에서 배운 실력을 뽐내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소비 촉진과 여성 농업인의 활력을 더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회는 농촌 발전과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촌 여성지도자 단체다. 한국생활개선회인시연협회에는 350명의 회원이 소속돼 지역 돌봄 재능봉사, 도농복합도시 맞춤형 식생활교육, 지역별 맞춤 영농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과학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의정부시, 2023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의정부시는 10월 16일 시청 인재양성 교육장에서 '2023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8월 1~30일 ▲공간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지역자원·자산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모전을 진행, 아이디어 25건(개인 13건, 단체 12건)을 접수했다.

1차 서류심사는 도시재생사업 적합성 여부를, 2차 발표심사는 제안사업의 필요성, 지역자원의 연계성,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 도시재생위원 및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3건 ▲입선 5건 총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의 병력 이전으로 침체된 빼벌마을의 상권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빼벌, 빼벌, 뺏뺏'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의 '클린 하우스 설치로 깨끗한 빼벌마을 만들기'가 선정됐다. 협의체는 마을의 쾌적한 골

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내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장려상은 ▲경민대학교 상가 활성화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및 활용 ▲대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의정부시 브랜드샵 개설 ▲광장에 일회용 컵 수거함 설치라는 주제로 각각 3개 팀이 선정됐다.

한 수상자는 "주민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을의 문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며,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마을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행정에 제안한다는 좋은 취지로 마련됐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하고 사업이 실행되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광명시, 드론으로 재난 대응... 민·관·군 드론 협력 체계 구축

박승원 시장 "시민 안전 확보 위해 민관군 드론 자원 적극 활용"

광명시가 관내 공공기관, 민간, 군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 2506부대 2대대, 민간교육기관인 광명시드론교육원, 새빛드론과 '민·관·군 드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아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내 재난·재해 발생 시 각각 보유 드론을 통합 운용해 실종자 수색 등에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 붕괴, 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관이 각각 운용하고 있는 드론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드론 운용 전문인력 양성과 유사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 실전 훈련 등을 함께 하는 등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드론은 4차산업의 핵

심기술 중 하나로 항공촬영, 방송,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이 재난 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각 기관과 드론 통합 운용과 교육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장애인가족에게도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이 될 것"

하남시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새로 열고 장애인가족이 겪는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981명 중 158명(16.1%)이 최근 1년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대담할 정도로 장애인가족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6일 개최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통해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도

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장애인가족들에게도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하남시지부(지부장 김말선)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며, ▲장애인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상담 ▲가족 휴식 지원 ▲사례관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장애인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제22회 광주시장기 동호인클럽 축구대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광주공설운동장 등 관내 6개 구장에서 '제22회 광주시장기 동호인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광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이철희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 강병욱 광주시축구협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대회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시 축구 동호인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열린 이번 대회는 10월 15일, 21일~2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3천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6개국 7개 팀이 처음으로 참가한 외국인부를 포함한 20대~60대부(5개 부), 기관·직장·단체부(1개 부) 등 총 7개 부로 진행된다.

방 시장은 "관내 20대 청년부터 중장년층, 특히 외국인팀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축구 동호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뜻깊다"며 "참가한 선수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공연프로그램	주요 어린이 프로그램	주요 부대행사
10.13.(금) 개막축하공연(박재정,비비지) 10.14.(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10.21.(토) 레전드 가요대전(조성모,민해경, 김범용)	챌린지 에어바운스 종이미로 탈출 어드벤처 황금빛 갈대열차 갈대숲 생태탐험대	음악이 흐르는 갈대로드 갈대숲 미디어 파사드 두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강진만 가을국화전시

제8회 강진만 추추는 갈대축제

The 8th GangjinBay Reeds Festival

2023. 10. 13.(금) ~ 10.22.(일)

강진만 생태공원

주최/주관: 강진군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전남도, 전국체전 해외동포선수단, 장학금 기부 잇따라

전남체육 발전·인재 양성위해 유망선수 43명 발굴해 격려



제104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해외동포 선수단의 전남지역 체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고국을 방문한 해외동포선수단을 환영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6일 저녁 남악 스키아레나컨벤션에서 개최한 환영행사에서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가 사이클 전남체고 강소은, 전남체중 오유라, 전남체중 레슬링 김연애 등 유망선수 3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 원을, 재독 출신선수단은 전남체고 육상 송수하에게 1천 원료를 전달했다.

또 재호주선수단은 18일 코알라 후원금 100만 원을 순천시청 유도 양서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재미국선수단은 '재미국선수단 환영의 밤'에서 목포공고 불림 이준서, 목포과학대학교 테니스 서지현 등 유망선수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기탁했다.

재필리핀선수단도 지난 12일 목포시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36명에게 각 50만 원씩 망고장학금 1천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18개국 1천308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참가 규모 면에서 2019년 서울대회(18개국 1천868명), 2014년 제주대회(17개국 1천614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전남지역 체육 발전과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동포선수단의 장학금 기부행렬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선수가 앞으로 더욱 훈련에 매진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체육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9일까지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박종배/기자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정원수저 순천시민들의 '정원사용법'

인생샷 찍고, 건강 챙기고, 땀방이와 피크닉, 온갖 공원까지 정원에서 한방에 즐긴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정원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도심까지 정원을 확대했고, 순천시민의 일상에는 한층 정원과 가까워졌다. 정원에서 추억을 쌓고, 정원에서 운동하고, 정원에서 먹고 즐기며 정원을 일상처럼 누리는 순천시민의 삶은 그야말로 '정원수저'다.

◇ 직원 추천! 억만송이 국화, 황화 코스모스 앞에서 '인생샷' 남겨볼까

대한민국 제1호로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은 언제 방문해도 아름답지만, 올 가을에는 10년 만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억만송이 국화와 황화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 더욱 장관을 이룬다.

조직원 관계자는 3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국가정원 내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가을꽃 스팟을 소개했다. 형형색색의 국화가 집중 식재된 ▲노을정원 ▲나르사정원, 갯벌공영장 인근 ▲드림정원, 그리고 SNS상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인증샷 성지로 꼽히는 ▲네덜란드 정원이다. 네덜란드 정원에는 최근 미니 풍차가 추가로 설치되어 아기자기한 풍차마을 느낌이 더해졌다. 황화코스모스 스팟으로는 가든스테이 근처 ▲메타세쿼이아길, 그리고 그린아일랜드와 출렁다리 인근 ▲동천변 일대를 적극 추천한다. 주말빛으로 흔들리는 우아한 코스모스 앞에서 저절로 카메라를 켜게 될 것이다.

올 가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낭만적인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국가정원을 방문해보자. 화려한 볼거리와는 다른 그윽한 매력의 가을꽃들을 가득 채워져 있어 손쉽게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 아침에는 어싱으로, 저녁에는 요가로 건강도 챙겨요

어싱(Earthing)은 맨발로 지면을 걷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맨발걷기의 다양한 효능(혈압 안정, 근육량 증진, 스트레스 완화, 허리통증 완화)이 알려져 전국적인 유행이 되기 전부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곳곳에는 어싱길이 마련됐다. 순천만국가정원·오천그린광장·순천만습지에 걸친 8개소·12km에 달하는 마스토 길에서 이른 아침 또는 저녁마다 어싱을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순천뷰티페스타 기념 '순천만국가정원 맨발걷기'행사도 열린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요가 프로그램 '오실 요가'가 열리고 있다. 초보자에게도 무리 없는 난이도로 진행되고 누구나 무료로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남녀노소 불문 인기가 좋다. 푸른 정원을 배경으로 어싱과 요가를 즐기다 보면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우울감을 해소되는 등 정신 건강까지 회복될 것이다.

◇ 마지막까지 꼭 채워 줄것다! 정원에서 도심에서도 문화 공연 한가득

폐막 직전까지도 국가정원과 순천 도심에서는 눈과 귀가 즐거운 문화공연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주말마다 일 4회 마술과 댄스가 결합된 거리퍼포먼스가 동원호수정원과 서원 아바타정원에서 진행되며, 3시에는 노을정원에서 가든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갯벌공영장에서도 오는 21일 '전남 필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세레나인 재즈스트라 연주회' 등 고품격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도심권인 오천그린광장에서는 박람회 주제공연과 함께 다양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다. 주제공연인 '카이로스'는 별도 기획 공연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일요일 상설무대에서 상연된다. 21일에는 황지열과 정인이 출연하는 '같이 들을까' 콘서트가, 27일과 28일에는 '청춘마이크 체크인 페스티벌'에서 전라권의 11개 공연팀의 공연, 래퍼 지이언티와 원슈타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진두지휘한 노관규 시장은 "정원야말로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 시설"이라고 말했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맑고 밝은 녹색으로 물든 일상, 사람과 동물의 슬기로운 공존, 수도권 부럽지 않은 풍성한 문화행사로 가득한 순천시민의 일상을 보며 부럽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노 시장은 "정원에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박람회가 끝나기 전에 순천으로 오시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의 터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함평군, 제104회 전국체전 '어서와요 함평' 홍보관 성황

전남 함평군이 전국체전 주 경기장(목포종합경기장)에서 운영 중인 함평 관광 홍보관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군은 전국체전 기간인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어서와요 함평!(Welcome to Hapyeong!)'이란 주제로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비롯한 함평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함평군 관광지를 담은 롤랫판 돌리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해 손수건, 머그컵, 함평 나비쌀, 키링, 그림톡과 같은 다양한 관광 홍보물품을 관람객에게 배부했다.

또한 국향대전의 주 소재인 국화와 꽃, 구름 스티커로 완성하는 나만의 우산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함평군의 대표축제인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널리 홍보하고 함평 관광 및 여러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평을 알고 즐길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남원시 세계드론제전 속 항공우주체험 방문객 발길 끊이지 않아



남원에서 펼쳐진 '2023 남원세계드론제전'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내가 꿈꾸는 미래, 과학으로 답하다!'란 주제로 진행된 항공우주 체험이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후문이다.

항공우주 체험은 전라북도 전통과학회에 소속된 각 학교 과학선생님들과 자원봉사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과학분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형 제작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재료 또한 무료로 제공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중력을 이겨라 △3색 UFO 자석팽이 △베르누이의 원리와 종이킥 비행기 △에어로켓 발

사 등 총 12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책으로 배우는 과학이 아닌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실험을 통해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반한 어른들 또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행사를 담당한 민원과는 "완성도 높은 행사 준비를 위해 전통과학회 실무진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해 더 알차게 행사가 진행된 것 같다"고 밝혔다.

체험장에 방문한 한 관광객은 "평소 소소한 과학분야에 대해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힘들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새로웠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에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또 다른 체험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이남출/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미국 수출 세일즈 결실 ... 500만불 농수산물 수출 협약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나주배, 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대미 수출 세일즈에 또 한 번 나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윤병태 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와 뉴저지주 H마트 등에서 지역 우수 농수산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4박6일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시장은 이번 해외 세일즈를 통해 미국 최대 아시아인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와 500만불(한화 약 68억원) 규모 나주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일정에는 김경숙 시의회 운영위원장,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 참가 업체인 골든힐·나주배원예농협·완도물산 대표, 전남식품수출협회 관계자, 배원예유통과 직원 등 11명이 윤 시장과 동행했다.

나주시와 수출 협약을 체결한 미국 H마트는 1982년 설립해 미국 뉴저지주 린드허스트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105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연매출이 23억 달러, 한화 약 3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유통업체다.

윤병태 시장, 최우진 H마트 사장은 미국 현지 날짜로 지난 14일 뉴저지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만나 수출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나주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심화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미주지역본부장과 나주 동강면 출신인 정승주 H마트 전무이사가 동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시장과 미국 방문단 일행은 협약식 이후 H마트 리지필드점 '나주산 농수산물 판촉행사' 현장을 찾아 나주배, 나주쌀 등 농특산물 우수한 맛과 품질을 현지인들에게 홍보했다.

나주산 농수산물 판촉 행사는 뉴저지 리지필드점과 뉴욕 제리코점 등 미국 5개주 11개 점포에서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식 일정에 앞서 윤 시장은 입국 첫날인 11일부터 12일까지 LA지역 현



지 유통업체,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 부스 현장에서 참여업체(5곳)를 격려하고 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또 지난해 나주 농특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한 한남체인 플러튼점, 전라남도 해외농산물판매장을 미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키트레이딩을 연이어 방문해 농특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해 한남체인

이민 '남원시 세계드론제전'에서는 드론 레저 스포츠 대회와 드론 산업 박람회뿐만 아니라 7개의 프로그램에서 약 60여 종의 각종 체험행사를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2023 남원시 세계드론제전은 드론 스포츠와 산업 박람회를 넘어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세대와 연령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와 행사유치를 통해 남원이 불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김영안/기자

전북도, 미식관광으로 관광성장의 기회 만들자

현장형 컬러너리 컨퍼런스 투어 추진

전북도가 지난 15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북미식탐사'를 주제로 국내·외 지명미 식 및 미디어, 로컬관광 분야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 17명과 함께 전북의 인문학에서 식문화를 담은 미식 루트를 탐사하며, 전북 미식 관광의 가치와 경쟁력을 발견하는 여정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진 남호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전북도 미식관광 활성화에 대해 제안했다.

지역 시장을 돌아보며 지역특산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시키거나, 지역주민 및 요리사 등 자영업자들의 개인 스토리를 전하며 친근감, 신뢰성을 형성해 인플루언서의 입심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음식 가치와 다양한 특이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위해 14개 시군별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이경 풀라리스 어드바이저 대표는 사물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관점이 다르듯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개인의 취

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라북도 음식 역시 스토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정혜승 작가는 '이제는 홍보가 아니라 소통의 시대'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최근 뉴스는 검색에서 공유로 바뀌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지역 음식에 대한 소개 역시 일상적인 정보전달이 아니라 음식의 재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 스토리를 만들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소비자 인 독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전달돼 흥미를 유발하고, 미식을 위해 전북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는 인생은 여행이 아닌 여정으로 가족들이 행복한 여행, 관광을 넘어 탐사로 이어져야 지역 관광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익산에서 발견된 노랑배 청개구리를 소재로 생명과 자연, 지역의 문화재, 스토리와 미식을 묶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의 재방

문을 위해서는 재미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희선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교수는 향토음식은 그 지방이나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특유의 조리법이나 가공 기술을 이용해 발전시킨 음식으로 전북에서도 시군별 식재료를 이용하여 여행객들이 문화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미식상품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성우 베리위즈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에코 플랫폼(e-Mobility Eco-Platform)을 소개하면서, 전북도 자연환경적으로 잘 보전되어 있어 이와 같이 탄소중립 관광모델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 가장 낮은 음식의 실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위생에 신경을 써야 전북 미식관광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이전관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요소가 음식인 만큼 지역의 음식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군과 연계하여 "전통 한식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 가족, 시니어 세대가 선호할 수 있는 미식 상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택시, 버스 등 교통운수종사자도 전국체전 성공을 위해 함께 땀니다.

교통운수종사자 단체들 대회 성공 개최 위해 아낌없이 지원

전국체전이 한창인 가운데 교통운수 종사자들의 참여가 빛을 발하고 있다.

지금껏 목포시민의 발이 되어 온 목포법인택시협의회와 목포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운수종사자 단체들이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 전체 1,500여대 택시는 전국체전 엠블럼이 들어간 홍보용 택시 깃발을 자발적으로 부착해 대회 홍보에 앞장서면서 불법 조성은 물론 성공개최 분위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모범운전자회원 50여명이 교통혼잡 예방을 위한 교통안내 봉사자로 나서

기도 했다. 이에 개최식 당일 종합경기장 주변으로 물론 4,000여대의 차량소통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이다.

특히, 시내버스는 목표를 찾은 손님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버스 1번, 2번, 13번 노선을 석현차고지에서 실내체육관까지 연장 운행해 시민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목포의 홍보대사 역할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 온 교통운수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2024년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보성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024년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자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라우드소싱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축제 슬로건 2개이다. 아이디어는 △보성다향대축제 및 보성차·문화와 관련된 고유한 핵심프로그램, △100명 이상의

불특정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타 축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 자유 주제이다.

슬로건은 보성다향대축제의 독창성, 활용성, 적합성, 대중성 및 축제의 비전을 담은 내용을 주제로 한다.

8개의 아이디어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며 10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입상작은 향후 2024년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 국민들과 보성군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성다향대축제에 반영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는 매년 5월 초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최원영/기자



구례군, 여순사건 75주기 추모주간 운영

75주기 맞아 위령제, 추모연극 등 다양한 행사 열려

구례군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75주기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모주간 동안 구례군에서는 '여순 10·19 사건 추모 위령제', '여순사건 역사연극 공연', '여순사건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등이 열린다.

이달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19항쟁 구례유족회'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추모 위령제는 250여 명의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공연, 추모시 낭송, 추모사 낭독, 위령제 등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염원하는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1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극단 '새로운 세상'이 공연하는 여순사건 기획연극 '뮤직드라마 슬픈 자화상'이 구례군 섬진아트홀에서 막을 올릴 계획이다. 19일과 20일 양일간 공연하는 이번 연극은, 제주 4·3으로부터 구례까지 이어진 여순사건의 아픔에 대해 휴머니즘과 위트를 담아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장으로서 기획됐다.

18일 오후 14시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명예 회복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여순사건 유해발굴사업 사업설명회'가 구례군 노인회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명예 회복 위원회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동면 일원에서 유해 발굴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하고 발굴된 유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순사건의 피해 정황을 구체화하고, 유족들의 해원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설명회에 유족 및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봉기군의 은신처로 이용된 지리산 아래에 위치한 구례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1~2년의 피해로 그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1948년 10월부터 1955년 4월까지 훨씬 긴 시간 동안 아픔과 희생을 겪었다'며 '그 피해 규모가 전체 인구의 최대 1/10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희생자와 그 유족이 아픔을 씻고 명예 회복을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여순사건 피해조사와 명예 회복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강진군에 이런 곳이! 1만여평 구절초 환상 군락

오염 안된 무공해 음천면 좌척마을 산기슭 꽃천지

강진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숨어 있던 대규모 구절초단지 가을 힐링 여행지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군 음천면 좌척마을(기좌리 산 85-1 일원) 입구 산기슭 1만여평의 구절초단지가 지역민들은 물론 오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0월 초부터 꽃이 피더니 점차 군락을 이루며 오는 11월 상순까지 백색의 향연을 펼칠 기세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0년 1,600평이던 구절초단지를 올해 1만여평으로 확대했다. 견기에 편하도록 야자 매트를 설치하고 벤치와 주차장을 갖춰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강진 미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곳곳에 꽃밭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마련해 왔다.

'가을의 여인'이라는 꽃말을 가진 구절초는 들국화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대표 가을꽃이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연한 분홍색을 띠는 경우가 있고 활짝 핀 다음은 대개 흰색이 된다. 우리나라 토종 꽃답게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자태로 인기가 많다.

경관 조성에 안성맞춤인 구절초는 약리 기능도 있다는 평가다. 심혈관질환 예방, 해독, 기관지염, 항균, 항염, 면역기능 증진에 뛰어난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진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정 음천면은 구절초단지뿐만 아니라 토하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토하는 청정 1급수에서만 사는 토종 민물새우다. 음천 토하젓은 맛이 고소하고 향이 그윽해 조선시대 진상품으로 일찍 감차 이름값을 했다. 입맛을 돋워 '밥도둑'으로 불리며 구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진 음천의 구절초단지와 토하젓은 오지의 대명사 '음천면'을 '오염 안된 무공해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이끌며 청정음천을 알리는 특색있는 자원이

자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게 음천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구절초공원을 완성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음천의 토하젓과 함께 특색있는 관광지 구절초공원의 관리와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아름답게 핀 구절초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정음천'에서 관광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앞으로도 힐링 여행 1번지, 꽃과 함께하는 강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완도타워 '국화 1만 6천 본으로 꽃단장' 11월 5일까지 전시

'2023 완도 국화 전시회' 10월 20일부터 17일간 개최

완도군은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17일간 완도타워 일원에서 '2023 완도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오는 20일 시작되는 '2023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국화는 총 16,500본이 전시된다.

국화 터널과 돌고래, 조개 벤치 등 새로운 국화 조형물 등을 준비해 지난해보

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타워 1층에는 완도사랑국화동호회원들이 정성 들여 키운 국화 분재 52여 점을 전시하고, 완도사생회의 서양화와 예현갤러리의 동양화 전시, 완도군민인협회에서 준비된 시화전도 진행된다.

완도 국화 전시회는 다른 지역 국화 축제와 차별화되게 푸른 바다와 완도 전

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완도타워에서 진행돼 해마다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복선 완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정바다와 국화가 어우러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힐링 할 수 있도록 전시회 준비에 구슬땀을 흘렸다"면서 "많은 분들이 들르셔서 아름다운 완도의 가을을

담아 가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진도군, 결핵관리 기관 표창 수상

진도군이 최근 대한결핵협회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표창은 진도군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견하고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은 결핵 환자 경감을 위해 결핵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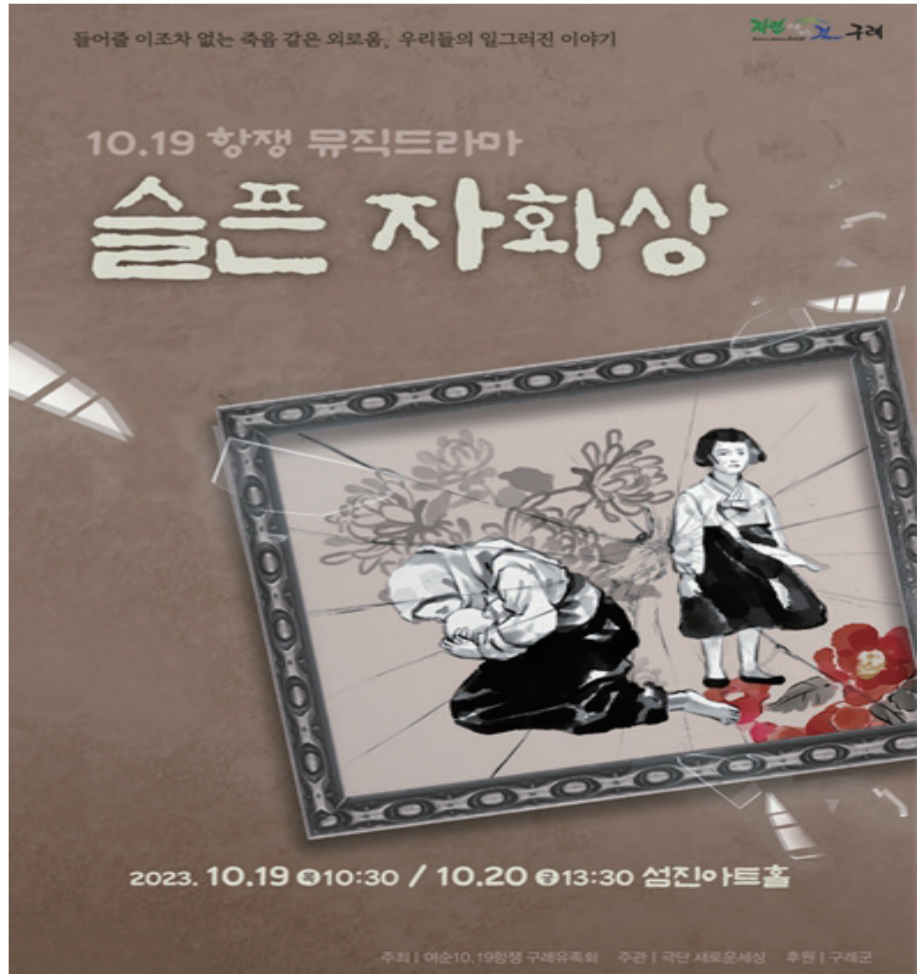
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별 이동 검진을 실시했고, 취약시설인 노인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관리대상인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투약과 복용 확인 등 수시 상담을 통해 완치율을 높였고 잠복결핵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결핵 예방과 환자 초

기 발견으로 결핵 감염 예방 관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불치병이 아니고 조기 발견과 꾸준한 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결핵에 대한 편견과 인식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펼치고 사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도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장기정착 기회 대폭 늘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자원봉사의 힘으로! 제17회 대구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법무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하반기 3만 명 대폭 추가 모집

경상북도는 산업계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지난달 25일 한시적으로 시행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 따른 지역 산업계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안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K-point E74'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기술 인재 도입을 확대하는 제도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모집 대상은 최근 10년간 단순외국인력(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자인 자이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활발한 외국인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산업계와 지역 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더불어 K-point E74를 통해 도내 산업계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채용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성실한 근로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도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시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과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제17회 대구자원봉사박람회'를 10월 21일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한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자원봉사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자원봉사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구성됐다.

현장에서 자원봉사 신규가입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등록관 등 주제관, 시민 안전 및 재난·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하는 홍보·체험관, 이벤트관 등 총 60개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관련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오후 2시 행사장 중앙무대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대구! 안전보상운동!' 주제 영상 상영, 개막선언, '우리 손으로 만드는 안전한 대구'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막식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두류여울길을 걸으면서 쓰레기 줄기와 환경보존 홍보를 함께 하는 '지구를 살리는 걸음기부' 걷기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무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자원봉사 문화공연 한마당'이 펼쳐져 행



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며, 그밖에 '시민이 안전한 대구! 자원봉사 사진전', '안전 자원봉사 체험 차량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마련해 재미있고 유익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중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많은 대구시민들이 가족·친구와 함께 박람회장을 방문해 가지 있고 재미있는 자원봉사를 손쉽게 접할길 바란다"며, "오늘 박람회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지속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의학분야 중대형 국제회의 잇단 유치

부산시, 올 9~10월만 의학분야 중대형 국제회의 2건 유치성과 2023년 이후 백스코 의학분야 국제회의 총 16건 유치, 2만6천여 명 참가 예정



부산시가 고공격 행사인 의학 분야 중대형 국제회의를 잇달아 유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 백스코(이하 관련기관)와 이번 9~10월에만 '2027 아시아태평양 간담학회(A-PHPBA)', '2027 아시아태평양골관절학회(APMTS)' 등의 의학 분야 중대형 국제회의 2건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의학 분야 국제회의는 지역 의료수준 향상과 의료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백스코에 개최가 확정된 의학 관련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체 참가자 예상인원은 2만6천4백 명에 이른다. 그중 2천 명 이상 참가 예정인 대형 국제회의는 7건으로 총 1만3천여 명에 달한다. 2023년 이후 개최 확정된 의학 관련 국제회의는 2023 아시아염증성장질환 학술대회, 2023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 학회, 2023 세계현미경학회, 2025 아시아심장학회 등이 있다.

이 같은 유치 성과의 뒤에는 지난 몇 년 간의 부산시와 관련 기관들의 전략적 노력이 숨어있다. 2020년 이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해운대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산 마이스(MICE) 산업의 기반 시설(인프라) 강화/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백스코의 오래되고 넓은 회의장 슬라이드 화면을 고품질의 엘디(LED) 화면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최근 고품질 영상 출력을 원하는 국제행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올해 확보한 공모사업비로 연말까지 엘디(LED) 화면 3개를 교체하면 백스코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엘디(LED) 화면을 갖춘 회의장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국제회의의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의 개최 역량 또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우리 시와 부산관광공사 그리고 백스코가 원팀(one-team)이 돼 마이스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영양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종점검회의 개최

영양군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6일 09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종점검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회의는 군청 13개 협업부서가 모두 모인 가운데 오도창 영양군수 주재로 실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인파사고·산불발생에 대한 기관합동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 훈련시나리오와 부서·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에 관하여 집중점검하고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인파사고·산불발생을 가정하여 27일 불시예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26일에는 기관장 주관으로 영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훈련 및 소소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훈련에는 민관합동의 대응역량강화를 위하여 경찰,



영양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종점검회의 개최

'매력 만점! 산소카페 청송군!' 2023 청송군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

윤경희 청송군수, "느낌과 심이 있는 산소카페 청송군 매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청송을 찾고 공모전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2023 청송군 SNS 콘텐츠 공모전

산소카페 청송군의 매력 찾기!

공모주제

- 청송여행: 산소카페 청송정원, 주왕산, 내가 찾는 청송 8경 등
- 청송특산물: 청송 사과, 나만의 청송 먹거리, 청송 특산품으로 만든 요리
- 그 외 산소카페 청송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공모일정

접수 기간: 2023. 10. 16(월) ~ 11. 20(월)
심사: 2023. 11. 21(화) ~ 11. 30(목)
수상작 발표: 2023. 12. 4(월)

공모채널 및 자격

- 공모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 게시 기간: 2022. 11. 21. ~ 2023. 11. 20.
- 공모 대상: 누구나 가능

주의사항

- 블로그: 전체공개, 검색어유무 설정, 사진 및 영상은 최소 10개 이상
- 인스타그램: 전체공개 설정, 사진 및 영상은 최소 5개 이상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gochongsong@naver.com)로 제출

시상내역

최우수상	50만원	50만원
우수상	30만원	30만원
장려상	10만원	10만원

필수해시태그

#산소카페청송군 #청송군 #청송여행 #청송정원 #청송지질공원 #청송사과 #청송맛집 #청송가볼만한곳 #경북가볼만한곳 등 청송 관련 해시태그 3개 이상

라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청송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비롯한 주왕산, 청송 특산물 등 청송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주제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10월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및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작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문으로 나뉘어 홍보 효과, 활용성, 작품성 등의 심사 평가를 거쳐 최우수 각 1점, 우수 각 2점, 장려 각 10점, 총 26점의 입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 400여 만 원 상당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더불어 참가 독려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10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느낌과 심이 있는 산소카페 청송군의 매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청송을 찾아주고 공모전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제12회 예천예술제』 개막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예천군민과 예술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

예천군민과 예술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

예천군에서는 올해 12회째를 맞는 『제12회 예천예술제』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예천예술제는 (사)한국예총예천지회가 주최하고 예천문인협회, 예천미술협회, 예천국악협회, 예천사진작가협회, 예천연예인협회 5개 지부가 주관하며 군민과 예술인들이 소통·공감·화합을 통해 서로에게 희망을 나누는 종합예술제다.

주요 행사로는 예천국악협회의 개막공연과 예천생활예술인공연, 한마음백일장, 물빛 미술실기대회, THE 예천사진촬영대회, 군민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등 관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인미술사진작가협회 시·화·그림, 사진 등 30여 점의 예술작품들이 전시된다.

진기석 지회장은 "문화예술을 주제로 군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많은 분께서 참여하시어 풍부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예천국악협회 개막공연

2023. 10. 21(토) 오전 10:30 ~ 11:30

장소: 예천군문화회관

주관: (사)예천국악협회

내용: ○ 선묘요 ○ 경기민요 ○ 한국무용

문의: (사)예천국악협회 사무국장 김내현(010-760-0584)

제12회 레크리에이션

2023. 10. 21(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예천군문화회관

주관: (사)예천예총

내용: ○ 레크리에이션



경북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불편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경상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 제도개선과 구매보조금 추가지원 등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나선다.

먼저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난 5일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총 주차대수 100대 이상의 시설에는 급속충전기를 1기 이상 의무 설치해야 했지만 노후로 인한 급속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오래된 아파트나 기숙사 등 건물에 대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제조사에서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을 할인해 줄 경우 구매보조금을 100만 원 추가해 최대 13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방비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현재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기자동차 10718대 보급과 함께 급속충전기 17기, 완속 충전기 500기를 연말까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9월 말 기준 경북도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5051대, 충전기는 총 11871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11대로 우수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과 충전기 보급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눈길'

오는 26일까지 쌀코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식 만들기

봉화군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급식관계자 및 농업인 전문 리더를 육성해 쌀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화군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쌀코지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쌀코지는 쌀에 유익한 미생물인 코지균을 직접 배양해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 발효물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봉화군 관내 농업인 및 소비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연수관에서 오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은 1기, 목요일은 2기

과정으로 나눠 총 6회 진행된다.

교육은 대한민국 쌀코지협회 대구 본부장, 경북 봉화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하 강사가 강의하며 실습 내용으로는 쌀코지 만들기, 쌀코지를 활용한 고추장, 간장, 황태된장 등 양념 만들기, 쌀코지를 활용한 과일김치, 야채고기말이 등 음식 만들기 등이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을 통해 관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해 우리 쌀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쌀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전문 리더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술이 술술~세계가 즐긴다!' 소주 본고장 안동 경북 명주 총집합, 애주가 천국 펼쳐져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 in 안동, 안동전통주박람회 개최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소주 등 지역 전통주를 중국의 마오타이, 유럽의 위스키 일본의 사케 등에 견줄만한 브랜드로 육성시켜, 세계인이 안동의 인정을 마시고 안동의 흥에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



경북 도내 40여 종의 전통주가 유교 문화의 도시 이곳 안동에 모여 전통주 체험 마케팅의 대축전을 열고 세계화에 나선다.

안동소주를 비롯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증류주, 막걸리, 과실주, 와인 등 각양각색의 술을 전시·체험·판매하는 이번 '경북전통주문화대축전 in 안동'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월영교 일대에서 개최된다.

특히,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안동전통주박람회'에는 학봉종택, 노송정종택, 하회마을을 충효당 등 11개

장가의 가양주를 비롯하여 도내 약 30여 개 전통주가 참여한다. 경북 전통주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뿌리로 국제무대로 나아갈 술 브랜드로 구축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20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안동시와 경북도는 미국, 태국, 뉴질랜드, 대만 등 해외 4개국 바이어와 전통주/안동소주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MOU 협약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주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에 관한 논의도 현장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전통주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협약식 이후 개막식이 진행되고 마지막 이벤트로 경북 북부권 온라인 여행소핑몰 '경북 바이지(BB-VOYAGE)' 오픈 기념 콘서트 가 진행된다. 'VOYAGE TO AN'이라는 제목의 콘서트에는 가수 김범수, 바다(SES), 하림, 라클라세, 두번째달이 참여하여 박람회장을 찾은 관객들께 감미로운 음악과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예정이다. 콘서트 참여 신청은 '경북바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다.

행사 둘째 날인 21일, 전국 70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카테일 경연대회가 컨벤션센터 전통주박람회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전통주를 기반, 최근 MZ세대들



이 즐기는 가벼운 맛과 향을 가진 카테일 만들기 경연을 벌여 전통주 현대화를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선보인다. 이 외, 안동 중앙신시장 상인회는 전통주와 특산물을 홍보하는 '중앙신시장 소·소·소 축제'를 펼친다. 육회, 문어, 간고등어, 수육 등 다양한 먹거리 포차가 운영돼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11개 중가 술을 시음해 볼 수 있는 중가 술 시음회와 문헌자료와 구전을 통해 이어온 중가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열린다.

경북전통주 문화대축전 in 안동 2023. 10.20일 - 22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월영교 일원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행사장 내 별도의 '안동소주관'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안동소주의 전통적 제조법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전시하고, 세계 유명 주류와의 비교평형도 열린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한류 열풍을 타고 K-컬처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술 소비 트렌드에서는 전통주 시장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라며 "안동소주 등 지역 전통주를 중국의 마오타이, 유럽의 위스키, 일본의 사케 등에 견줄만한 브랜드로 육성해 세계인이 안동의 인정을 마시고 안동의 흥에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지족3리 경로당', 전국 실버페스티벌에서 '금상' 수상해

사)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소속인 삼동면 지족3리 경로당이 지난 15일(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남강야외무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본선공연에서 8개 팀이 경쟁한 '다복한 실버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은 다시량 봉사회와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위원회가 주관하고, 경상남도와 진주시, 한국예총진주지회 및 서경방송이 후원하는 행사다.

올해 예선은 지난 달 16일, 진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소중한 실버부문' 경연 80팀과 '다복한 실버부문' 경연 17팀이 기량을 뽐내며 경연을 펼쳤다.

본선에서 금상을 차지한 삼동면 지족3

리 경로당(회장 박명심)의 12명의 회원들은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와 이안 댄스를 5개월여 동안 배웠다. 지족3리 경로당 댄스팀은 순수한 경로당 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평균연령은 77세다. 조항자 회장은 "하와이안 댄스를 시작한 때부터 매순간 젊은 날의 나를 만나는 순간이었으며 아직 남아있는 청춘을 즐기기로 마음먹은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관계자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한 재능과 뛰어난 실력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준/기자**



'영주 원도심 야행' 성황리 첫선,내달 11일까지 열려

첫 주 투어 프로그램 전 회차 매진되는 등 큰 관심 받아 정교완 관광개발단장, "앞으로도 21일, 11월 4일과 11일까지 3번 더 진행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밝히



영주시는 지난 14일, 처음 진행한 '관사골에 비친 달빛, 2023 영주 원도심 야행'이 전 회차 매진되는 등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야행 프로그램은 중앙시장, 후생시장 등 전통시장 및 근대화거리, 관사골과 부용대 등 영주시 원도심을 걸어서 탐방하며 다양한 체험을 함께 연계하는 야간 진행 콘텐츠로서 오후 6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3차례 진행됐다.

이날 원도심 야행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진행된 기관사 투어와 상시 체험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됐다. 기관사로 분장한 전문 투어가이드와 함께 영주의 원도심 여러 곳을 둘러보며 관련된 역사와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기관사 투어는 3회차 신청이 모두 조기 마감되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이번 원도심 야행의 주요 경로는 중앙시장에서 출발해 후생시장의 근대역사로

화박물관 관람과 후생시장 마당에서 떡지치기, 구슬치기 등 추억의 놀이 체험, 한우숯불거리에서 영주한우 한 쌈 즐기기 체험, 근대역사 문화재 가이드 설명과 함께하는 제일교회, 풍곡정미소, 영광이 발관, 관사 5호와 7호 탐방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관사골 할매떡방마을센터에서 떡 만들기 체험 및 부용대에서 야경 포토존 감상 및 버스킹 공연 등으로 총 3시간 동안 영주시의 원도심과 근대화 거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개방된 풍곡정미소와 영주 제일교회에서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 등이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민 A(여, 42세, 영주시 가흥동 거주)씨는 "아이가 처음 해보는 떡지치기를 너무 재밌어 하고 떡 만들기도 고사리손으로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제일교회에서의 파이프오르

간 연주와 부용대에서의 버스킹 공연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한번 신청해서 경험해보라고 말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이번 '관사골에 비친 달빛, 2023 영주 원도심 야행'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을 저녁에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21일, 11월 4일과 11일까지 3번 더 진행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사 투어 예약은 (재)세계유교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야행 코스, 프로그램 안내 및 야행 관련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three...questions) 그리고 유선전화(☎054-851-718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금자/기자**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입장 발표

"의성군 화물터미널 배치는 당연한 것"

의성군은 17일 의성군청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성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절차는 절대 없을 것 △의성군 공항합의문의 핵심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는 반드시 의성군에 배치 △기본계획수립시 반드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 △대구시장은 의성군민을 모독하고 폄하하지 말 것 등의 의성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소집단이기주의, 폐법을 쓰는 것'이 아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며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해 국가안보 군공항과 경제물류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뜻에는 변

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성군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된다면 앞으로 군민의 뜻을 담아 상생발전을 목표로 서로 상호협력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급증 안전수칙 준수 당부!

농기계! 아차하는 순간 사고 발생, 전년도 10월 최다 안전사고 발생

경북도는 지난 8일 경주시 건천읍 한 농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져 안타깝게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 등 최근 수확철을 맞아 농가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486명(사망 28, 부상 458)이다.

농기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302건(62.1%), 트랙터 63건(13%), 농약살포기 27건(5.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170명(35%), 60대 126명(25.9%), 80대 116명(23.9%), 50대 48명(9.9%), 40대 12명(2.5%)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652명(사망 31, 부상 621)이

있으며 특히, 수확철인 10월에만 총 90명(13.8%)이 발생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농촌지역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복, 추락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과 관련해 △작업 전·후로 농기계 안전 점검 △경사로·좁은 길·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확보 및 감속 운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 및 농기계에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부착 △농기계에 동승 등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은 "가을철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 스스로 안전 수칙 준수와 꼼꼼한 농기계 점검 등 안전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금정구', 다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배움의 경계를 허물다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제11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제20회 주민자치회 솜씨저랑 한마당 연계, 평생학습 배움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
합창단·풍물·연주 등 수강생 공연과 요리·놀이·수공예 등 다양한 체험 진행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15일, 스포원파크 수변공원 일원에서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 재도약하는 금정!'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2023년 제11회 금정구 평생학습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평생학습 나눔문화와 주민자치 참여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평생학습박람회는 16개 동 주민자치회 및 평생학습 관련 2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그동안의 학습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의 수어, 연주, 합창, 댄스 공연과 제20회 주민자치회 솜씨 저

랑 경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서예, 캘리그라피 등 작품전시 및 풍선아트, 동화구연, 바리스타, 베이커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까지 준비하여 방문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스포원파크에서 개최하여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며, 앞으로도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준 높은 평생학습도시 금정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세계의 공연시장 첫 도전!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성황리 폐막

올해 처음 선보인 시민 축제형 공연마켓으로 전세계 33개국 공연산업관계자 참여
박형준 부산시장, "앞으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PAM'이 아시아 최고 공연예술
도시 부산을 만드는 지속적 공연예술 유통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공연 축제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히



부산시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민회관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서 개최된 공연예술 유통 시민축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하 BPAM)이 예술관계자와 시민의 큰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국내·외 130여 명 공연산업관계자와 1천여 명의 예술단체와 시민 등 총 1만8천 명이 참여했고, 무용·음악·연극·미술·코미디·거리예술 등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총 92개의 공연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의 유통과 다양한 공연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극장공연과 거리예술공연의 연계로 관람에 특별함을 더했다.

시는 '아시아 최대 공연예술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내걸고 다양한 공연예술 유통정책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올해 국내 유일무이한 혁신적 시도로 처음 준비한 'BPAM'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 공연유통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국내외 33개국 공연예술산업 관계자, 예술인, 시민 등 1천300명이 참석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성공적인 마켓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의 환영사, 이종호 BPAM 예술감독과 에든버러 프린지 총감독 소냐 맥카시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후 연극(더 클라운), 무용(볼레르), 음악(조윤성의 재즈타령), 매직(스냅), 뮤지컬(마틸다 Naughty) 등 국내외 인정받은 다양한 장르의 5개 공연이 종합 오피니언 형으로 구성돼 펼쳐지며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연유통' 중점으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총 92개 작품은 예술산업 관계자에게는 유통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공연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타 국내 공연예술 행사와 차별화되고 독자적인 많은 수의 공연을 BPAM무대에서 선보인 결과, 국내외 공연산업 관계자들이 각자 기호에 맞는 만족도 높은

공연을 발굴할 수 있는 판로가 열렸다. 시민관람객들은 "부산에서 한꺼번에 다양한 많은 수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져 놀라웠다", "다채로운 공연을 실컷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호평했다.

특히,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공연예술산업체와 예술가, 예술단체 간 76회의 간담회(미팅)가 성사됐고, 부산공연 '컨테이너(연극)'를 포함한 여러 우수 공연이 캐나다 등 8개국 공연산업체의 공연 초청 제안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국내·외 공연예술 산업체와 예술가, 예술단체 간 일대일(1:1) 매칭으로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제 공연유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BPAM 데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17개 국내외 공연산업체와의 20개 예술단체의 간 총 76회 미팅을 성사했다.

그 결과 개막작품 볼레로(한국예술종합학교), 컨테이너(따뜻한사람, 부산작품) 등 우수 공연작품이 영국, 캐나다(시나르), 영국, 독일, 미국, 헝가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인도네시아 등 나라별 대표 공연예술행사에 초청 제안을 받았다. 시나르 비엔날레 등 해외 유명 공연마켓에 국내 공연이 초청을 제안받은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연으로서는 보기 드문 성과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BPAM 나이트를 통해 자유로움 네트워크의 장과 부산 공연 예술생태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행사 기간 내내 제공했다.

전세계 공연산업체 대표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BPAM TALK(토크)'에서는 세계적(글로벌) 공연예술 생태계 활성화

를 위한 협력적인 관계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세계적 공연유통 협력체 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종호 BPAM 감독을 중심으로 에든버러 프린지 총감독, 아비뉴 페스티벌 OFF 공동대표, 호주 애들레이드 감독, 시나르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발제에 참여해 국제퍼포먼스로 진행됐고, 이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마켓의 연혁, 성공배경, 향후 BPAM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해 제안하고 기대효과, 상생 전략을 공유했다.

아울러, 전세계 공연산업관계자가 매년 BPAM에 참석해 부산에서의 정례적인 만남을 갖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14 ~ 15일까지 양일간 각 예술단체, 공연 축제별 공연 홍보와 자료제공을 위해 운영된 BPAM BOX(부스)에는 약 900여 명의 공연산업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외에도 행사 기간 파빌리온을 통해 공연 유통의 공간, 휴식의 공간이 운영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계 공연예술 생태계의 공연산업관계자·예술단체·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부산의 공연예술생태계가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적 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PAM'이 아시아 최고 공연예술도시 부산을 만드는 지속적 공연예술 유통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공연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영덕군, 흡연·음주 예방교육 뮤지컬 인형극 개최

영덕군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의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영덕무형문화재전수관 소공연장에서 흡연·음주 예방교육 뮤지컬 인형극 '영덕군보건소와 함께 떠나는 노! 스토킹 대작전!'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각적인 효과와 흥미를 돋우는 인형극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음주 폐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조기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레이저쇼, 흡연 예방 포토존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해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와 아동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재용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른들에게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전달해 실천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이사금쌀' 대한민국 쌀브랜드 대상 수상 쾌거

육묘 단계에서 병충해를 철저히 방제해
모내기 후 농약 사용량 줄인 점 높이 평가

경주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 '경주 이사금쌀'이 1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쌀페스타에서 K-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K-쌀브랜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53개 쌀 브랜드를 대상으로 쌀 품질,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여기서 경주이사금쌀은 최고 득점을 얻어 대상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을 수상했다. 도내에서는 경주를 포함한 참가 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그간 경주시는 지역 토양에 가장 적합하고 밭맛 좋은 삼광벼 재배를 적극 권장해 쌀 품질을 균일화, 고급화하고 육묘 단계에서 병충해를 철저히 방제해 모내기 후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점을 인정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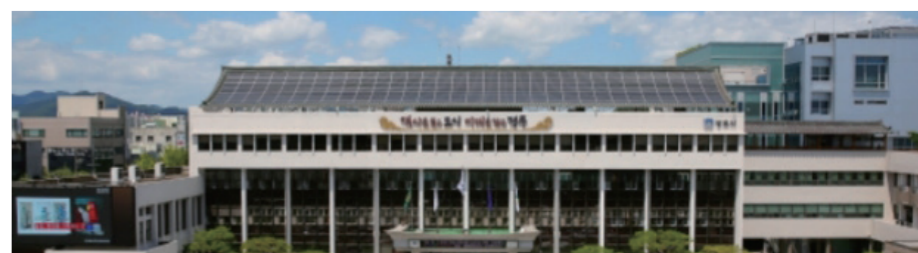
특히 벼 건조 저장시설을 저온 저장시설로 개선해 장기 저장으로 인한 쌀 품질 저하를 최소화 하는 한편 미국 종합처리장 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로 고품질 쌀을 얻는 데에 포장·판매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로 인해 최근 소비자들의 신뢰와 호평을 잇달아 받아 대기업의 햅쌀 생산용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 시는 지난 10년간 재배농가, 농협 등과 협업체 경주이사금쌀 품질 고급화 결과 농식품부 고품질쌀 육성사업 선정, 경북도 6대 우수 브랜드 쌀 선정 등 좋은 평가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생산농가와 협력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품질관리 노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 받는 '경주 이사금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청송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블랙코미디 "아비"

윤경희 청송군수,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 가족 간 소원했던 관계를 되돌아보고 가족의 사랑, 화합을 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해

청송군은 청송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으로 현대 가족의 문제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블랙코미디 "아비"를 오는 18일(수) 저녁 7시 30분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아버지의 깊고 큰 사랑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이며 가족의 사랑을 코믹하게 재조명한 '아비'는 인간의 욕망을 풍자한 연극이다.

이번 공연은 유산을 놓고 벌이는 자식

들과 아버지의 한 판 승부를 빠른 템포감으로 전개하며, 이동학, 신승희, 김재권, 예병대, 구진아, 강영은, 이승재 등 중장년, 청년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 가족 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되돌아보고 가족의 사랑, 화합을 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등포구, 역사 속 인권 여행 떠나자...2023년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인권의 의미와 역사가 깃든 장소 탐방

영등포구가 구민이 직접 인권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2023년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은 지역 내 인권 수호의 가치가 녹아있는 장소를 찾아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30일과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회 운영된다. 탐방 코스는 약 2.9km이며, 소요 시간은 2시간 내외이다.

탐방 코스는 지역 내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도판(표지석)이 설치된 곳으로, ▲호주제와 동성동본 혼인 금지제도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옛 여성백인회관, 여의도 소재)' ▲2005년 11월, 농민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던 여의도 공원 내 '여의도 농민시위 현장' ▲1960년대 말, 노동 조합과 노동 인권이 꽃 피었던 당산동 '영등포 산업선교회'이다.

참가자들은 인권 전문가와 함께 인권

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접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15명씩, 총 30명이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은 프로그램 운영 전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민 인권지킴이단 ▲찾아가는 인권교육 ▲주민 인권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이 영등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권의 역사를 느끼는 뜻깊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펼쳐 구민 모두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환식/기자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운영일자	모집기간
2023.10.30.(월) 14:00~16:00 2023.10.31.(화) 14:00~16:00 ※ 1회만 선택 신청	2023. 10. 4.(수) ~ 선착순 마감
활동내용	모집대상
전문해설가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인권현장 탐방	인권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선착순 30명/ 회차당 15명)
참가비	신청방법
무료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신청 ○ 감사담당관 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

서대문구 스타셰프 팝업 레스토랑 이번엔 '미카엘 셰프'

이대 상권 활성화 위해 추진, 10월 26일 이대 상권의 한 건물 1층에 식당 마련

서대문구가 올해 6월 '홍신에 셰프의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7월 '여경래 사부와 제자들'에 이어 이달에는 불가리아 출신의 미카엘 셰프를 초청해 세 번째 '스타셰프 팝업 레스토랑'을 연다.

구가 이대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획한 행사로, 이날 26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대 상권의 한 건물(이화여대3길 35) 1층에 이를 위한 팝업스토어(반짝매장)가 마련된다.

TV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널리 알려진 미카엘 셰프가 이날 불가리아식 떡갈비 '큐프테'와 한우양지 오븐 스테이크, 드링크요구르트 등을 높은

가성비로 선보인다.

미카엘 셰프는 판매액의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대문구 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할 예정이어서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미예약자를 위한 좌석도 일부 마련될 예정이지만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다.

구는 팝업 레스토랑 이용자가 신촌역사주차장(3~5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주차권을 배부한다.

이성현 구청장은 "계속되는 스타셰프 팝업 레스토랑 행사가 이대 상권의 인지도와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우리동네 복지·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성동구, 2023 복지안전협의체 발대식 개최

복지·안전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성

서울 성동구는 지난 5일 취약계층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보다 더 세심히 살피기 위해 구성된 '2023 성동구 복지안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복지안전협의체는 행정안전부 공모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와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밝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 170명으로 구성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는 기존 반지하주택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층후 빅데이터와 동별 여건에 따른 사회 복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복지·안전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통해 올해 말까지 영역별 위기상황을 조사할 예정

이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안전신분증 제작,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포용도시 성동을 실현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굴된 주거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주거지원 외 다양한 맞춤형 복지·안전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복지와 안전, 돌봄까지 한 번에 살피고 지원하는 원스를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원우 성동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의



복지와 안전을 세심히 살피주시는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에 적극 참여해주신 복지안전협의체 참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어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2023 반포3동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개최

주민센터 1층 갤러리에서 자치회관 미술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합동 전시회도 개최



반포3동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연주 Y.W첼버오케스트라

2023. 10. 19.(목) 19:00

반포3동 주민센터 1층 광장

서울 서초구 반포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7시에 반포3동 주민센터 1층 광장에서 '2023 반포3동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연주는 지휘자 이종기(빈 소년합창단 지휘자, 前예원학교장)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Y.W첼버오케스트라가 한다. 비제 '카르멘' 서곡,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5번, 모리코네 '가브리

이홍수/기자



안전한SMR개발로 원전을 미니하게 한수UP!

에너지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를 클린에너지로 한수UP!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 앞선 에너지 기술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로 한수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특별자치도 시대의 지속가능한 강원산림' 심포지엄 개최

10월 18~19일, 양양낙산비치호텔, 산림엑스포 마지막 다섯 번째 학술 프로그램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0월 18일부터 이틀간 "특별자치도 시대의 지속가능한 강원산림 심포지엄" 학술행사를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5개 학술 프로그램 중 마지막 일정으로,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강원산림포럼,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도산림과학연구원, 강원도산림보호협회 그리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림 방향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13시 30분 개회식에서는 차두송 (사)강원산림포럼 이사장,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김동일 상임부위원장, 양양군 조영호 부군수, 양양군의회

오세만의장, 강원산림포럼 우종춘 고문 등이 참석한다.

이어 14시부터 진행되는 주제세션 1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의 강원 산림재해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도산림과학연구원,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에서 산림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생명숲, 강원대학교, 강원영동 생명의 숲에서 참여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주제세션 2는 이틀날 19일 오전 9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산림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강원연구원, 신안대학교, 도산림과학연구원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춘천생명의 숲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강원도가 우리 산림의 중요성을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 분야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을 토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9월 22일 시작된 한국산림과학회·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제PEN한국본부,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까지 총 5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산림과 환경, 산업, 국제 교류, 산림 치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주제를 통해 우리 산림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500여명이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우리 바다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수산물 소비 · 어촌휴가 장려 챌린지' 동참

박경귀 아산시장이 17일 '수산물 소비 · 어촌휴가 장려 챌린지(이하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7월 국회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및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시장은 자매도시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지명을 받아 '우리 바다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챌린지를 진행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시에서

도 다양한 노력을 하는 만큼, 수산물 소비가 되살아나 어업인이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지명하며 챌린지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챌린지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한 인증사신이나 영상을 SNS에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한 가정에 돌봄 공백 해소

원주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형 75% 이하, ㉡형 120% 이하, ㉢형 150% 이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85%까지 본인부담금을 부담했고, ㉢형(소득기준 150% 초과)은 정부의 지원 없이 100% 본인부담금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에 모든 가정에 지원이 늘어 ㉠~㉢형은 기존 본인

부담금의 50% 시 지원, 50% 본인 부담이며, ㉡형은 본인부담금의 20% 시 지원, 80% 본인 부담으로 변경됐다.

본인부담금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다음 달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송명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가 일 가정 양립과 경제적 부담완화, 건강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춘천시보건소,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종료 홍보

춘천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는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식품제조가공업 197개소의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계획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회신 업체 및 교체율 미진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 등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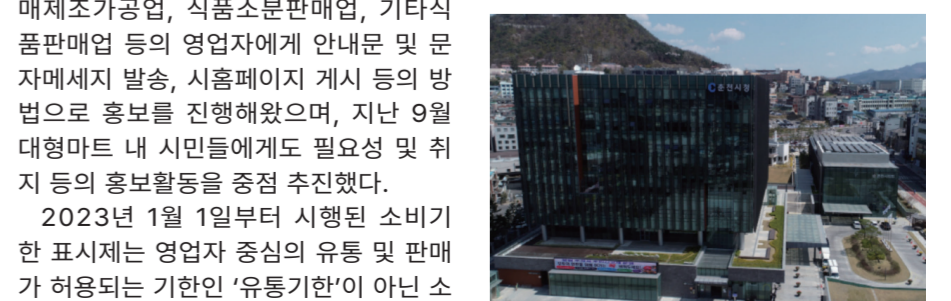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전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 발송,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9월 대형마트 내 시민들에게도 필요성 및 취지 등의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아닌 소

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포장지 교체 비용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혼란 방지 및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노인 건강·일자리 챙기고 예우·지원 확대"

17일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유공자 표창 등 감사의 자리 마련

충남도는 17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은 사회 발전과 후손 양육에 역할을 다해 온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제고하고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자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김태환 지사와 홍문표 국회의원, 김북만 도의회 부의장,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 김지철 도교육감, 유재성 도경철청장, 시군별 노인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경로현장 낭독, 모범 노인 및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노인회 중앙회장상, 도 연합회장상 등을 노인의 날 유공자에게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에 맞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신 어르신들 덕분에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됐다"라며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과 일자리"라면서 전국 최초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최, 파크골프

장 조성 등 노인 체육 활동 관련 사업과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개소, 노인회 예산 증액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끄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며 "힘써충남인 만큼 '노익장을

과시한다'라는 말이 충남에선 당연하게 들리도록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천안에서 전국 최초로 '전국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해 노인체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앞으로 더욱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마다 36홀짜리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으며, 청양에는 관련 협회 이전과 108홀짜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희망소리 찾기, 치매안심센터 등 선도 정책도 펼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확대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국내외 역사문화 교류 탐방, 경로당 프로그램 및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등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충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대한민국 막걸리 & 못난이 김치 축제' 개최

청주시 문화제조창 광장에서 10. 27.(금) ~ 10.29.(일) 3일간 개최

전통주산업 활성화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막걸리 & 못난이 김치 축제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청주시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2023년 대한민국 막걸리 & 못난이 김치 축제는 (사)한국막걸리협회와 (사)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행사이며, 전국 곳곳의 지역 특산 막걸리와 충북 대표 푸드업사이클링 못난이 김치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개최되어 오던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지방에서는 최초로 충북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

축제 기간에 전국 100여 종류의 유명 막걸리와 못난이 김치를 무료로 맛볼 수 있으며, 충북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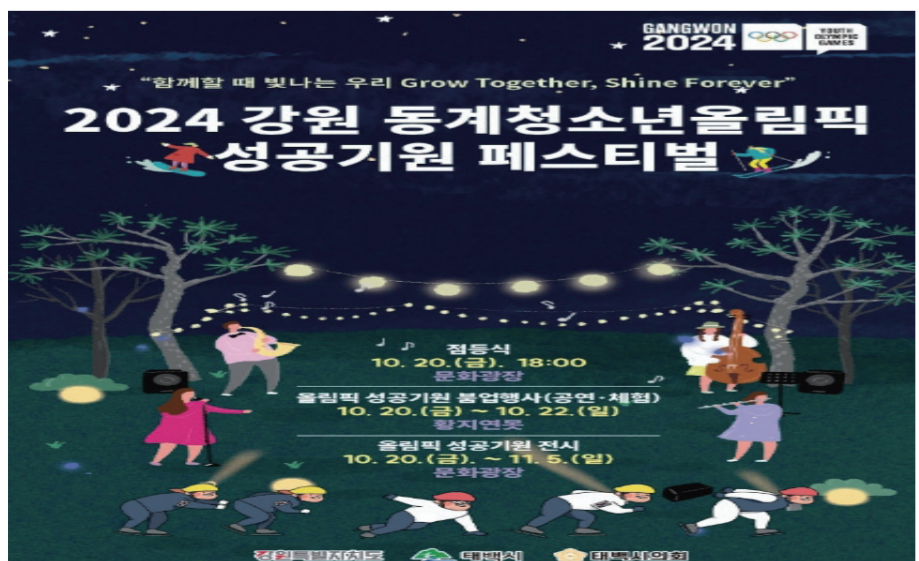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만의 막걸리 빛기·못난이 김치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공연 및 막걸리 파티를 진행하여 무료익은 가을밤 막걸리와 더불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 발효식품인 막걸리와 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기원 페스티벌 개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페스티벌이 오는 10. 20. 18:00 점등식을 시작으로 10. 22.까지 태백문화광장과 활지연못에서 개최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기원 페스티벌은 대회의 성공개최 범접조성을 위해 개최도시 외 배후도시에서 열리는 사업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태백시는 페스티벌에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콘텐츠를 마련하여 올림픽의 홍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10. 20. 17:30 걸스합합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8:00부터 태백의 천년주목의 기원성을 담은 '천년주목 점등식'

를 비롯한 드로잉쇼가 펼쳐진다. 전시는 11. 5.까지 진행되며 천년주목 뿐만 아니라 등간, 소리나무, 동물한지등 등의 전시물들이 활지연못을 밝힐 예정이다.

10. 20.~10. 22. 11:00~17:00까지 임을 비롯한 컬링체험, 꿈을 담은 무드등 만들기 등 무료체험행사가 진행되며, 10. 21.~10. 22. 양일 간 지역청소년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공연이 진행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태백시민들이 문화행사를 통해 대화를 알 수 있도록 북돋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전국 최초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순항... 민생영역 전반으로 확대

市 자체 이상동기범죄 대응 TF팀 가동...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상동기범죄 대응 TF'팀을 꾸려 야간합동 순찰, 모의훈련 등을 진행한 안산시가 시민 안전모델을 민생영역 전반으로 확대해 나간다.

안산시는 지난여름 다수 발생했던 다중밀집시설 흉기난동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직·상항 근무와 연계한 24시간 신속 관리·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TF팀 활동 종료 후 안산시와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경찰력만의 활동이 물리적 한계가 있음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경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협업 모델인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지난 8월 공식 출범시켰다.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민·관·경의 기능 협업을 통한 총력 대응을 통해 촘촘한 공동체 치안망을 확보하고 범죄 발생을 선제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예기치 않은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 치료를 돕고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심이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이상동기범죄 피해 최소화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했고,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비롯해 상록구 이동 4호선 한대약역 상가 일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치안 활동을

별인 바 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선 시민들이 가장 밀집하는 곳 가운데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민·관·경·소방이 모두 참여하는 이상동기범죄 대응 상황조치 모의훈련을 진행해 시민안전모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최정부/기자

아산시, 노후화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 2대 교체

아산시는 탕정면 및 염치읍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된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 2대를 교체했다고 16일에 밝혔다.

시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배방읍 신도시민원행정센터, 아산세무서, 경찰서,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 집합 장소 위주로 관내 총 22개소에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다.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은 올해 현재까지, 분청 2만8494건, 읍면동 및 사업소 10만7344건 등 총 13만5838건의 높은 이용 건수를 기록하며 부동산 정보 행정서비스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기 교체를 통해 높아지는 시민 수요에 대응하고 더 신속·정확하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원터치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은 △토지대장 △지적(임야)도 △최신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개발공시지가 △건축물대장 △개발주택가격 △도로명 주소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시의 축제, 관광 안내 등 시청 홍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김원호/기자



질병관리청, 불법어선 등에 대한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흑산도 검역현장' 점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목포검역소,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보건지소와 공동으로 지역 기반 선제적 감염병 감시체계 점검 및 신속 검역대응 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는 '23년 10월 17일 신안군 흑산면 보건지소 및 흑산도항을 방문하여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신속한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정환 센터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증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염병이 존재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 9월 11일부터 서·남해안 금어기(해상조업 금지) 해제로 중국어선 조업 시기에 맞춰, 기상악화 및 선박 고장 등으로 흑산도에 피난하는 중국어선 등에 대한 신속한 검역을 국립목포검역소에

주문했다.

또한 시간상 또는 공간상 한계 등으로 검역, 역학조사 및 진단분석 등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권역 질병대응센터-검역소-보건소(흑산지소) 간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페스트,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검역관리지역(국가)"로 특별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홍보 등에 있어 지역 보건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감염



병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 점검 및 홍보에 나서

11월 24일까지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 점검 및 홍보

양양군이 오는 11월 24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식품점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 확대 관련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선다.

이는 11월 24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확대된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점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종합소매업 등이다.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식품점객업·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이용 금지, 식품점객업(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제과점과 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이용이 금지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1회용 우산 비닐 이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이외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이용 금지 등이다.

군은 관내 식품점객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및 규제품목 안내문을 발송

했고,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기존 규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 기간이 종료된 11월 24일부터는 규제 강화 품목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혼선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강진군, 소상공인과 소비자 원-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진군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적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착한업소 지원책은 우수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지원해,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에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8개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비 1,560만 원을 지원했다.

강진군에는 외식업 11개, 미용업 2개 등 총 1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으며, 군은 기존에 지정된 업소들에 대해서도 가격 안정 노력과 위생 청결 여부 등을 현지 방문해 점검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정 대상은 자영업 개인사

업자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해당이 되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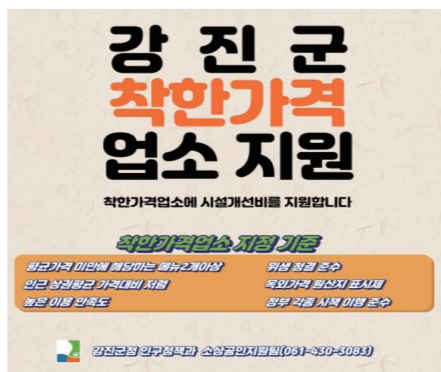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은 강진군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 업종 가운데 ▲평균 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 2개 이상 ▲인근 평균 가격 대비 저렴 ▲높은 이용 만족도 ▲위생·청결 준수 ▲육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각종 시책 이행 등을 준수한 업체 가운데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들은 인종 표찰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받는다. 더불어 올해에는 시설개선 비용 및 장비 교체 비용 등 1개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

원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물가안정, 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대 지정하겠다"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경북교육청,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으로 순항 중!

육상 포환던지기 남고, 여고 부별 한국신기록 동반 수립

임종식 교육감, "지도자 열정과 학생선수들 성실함이 어우러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고등부 선수단을 응원하며, 남은 기간 동안 안전한 대회 참가와 최상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전라남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고등부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으로 목표인 종합 3위를 향해 순항 중이라고 17일(화)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16일(월) 18시 기준 금메달 3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30개, 합계 8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육상 포환던지기에서 남고부 박시훈(금오고 1년) 선수가 19.28m, 여고부 박소진(금오고 3년) 선수가 15.97m로 부별 한국신기록을 동반 수립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다관왕에는 수영 남고 다이빙에서 최강인(울곡고 2년) 선수가 4관왕을 차지

했으며, 역도 남고 67kg급 김요한(안동중앙고 2년), 수영 남고 다이빙 이원섭(울곡고 2년), 자전거 남고 박준선(영주제일고 2년), 자전거 여고 권나혜(경북체육고 3년) 선수는 각각 2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경북교육청은 남은 경기에서도 핸드볼, 탁구, 체조, 세팍타크로 등의 종목에서 승전보를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도자의 열정과 학생선수들의 성실함이 어우러져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고등부 선수단을 응원하며, 남은 기간 동안 안전한 대회 참가와 최상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경기 한국어공유학교' 개원,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집중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위해 지역 연계 모델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뤄지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모델이다.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8,966명이다. 이는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26.2%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이해에서 오는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그동안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랭귀지 스쿨에서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루어져 기초학력 신장과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심리지원 등 다양한 교육이 단기형(60일), 장기형(1학기) 형태로 운영된다.

오는 17일 안산에 개원하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퇴직 교원 4명을 채용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집중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며, 250차시 교재를 직접 개발했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안산을 시작으로 동두천(11월), 남양주, 시흥 등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닌 강점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확대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문화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임기제 공무원 배치, 기초수학 보정자료 다국어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북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사업 공모 실시

우리 지역 폐교, 우리 손으로 운영해요

경북교육청은 폐교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내 미활용 폐교 26교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교의 활용방안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화) 밝혔다.

2023년 9월 기준 보유 폐교 수는 227교로 그중 미활용 중인 폐교는 47교다.

경북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47교 중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정해진 21교를 제외한 26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 사업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을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며, 경북교육청은 무상대부 및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지역주민 공동체만 폐교 당시 통학구역 내 지역주민 50% 이상이 조합이나 마을회 등을 조직하는 것으로 폐교를 지역 관광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 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화)~10월 27일(금)까지이며,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해 전자우편, 우편,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교육청은 제출된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의 타당성, 대부 목적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 지원 여부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규태 행정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폐교가 다시 지역의 구심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강화한다

8개 한국어학급 신규 지정해 내년부터 24학급으로 확대 운영

부산시교육청이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한국어학급'을 확대 운영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4개 한국어학급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어학급'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한국문화 등을 집중교육 하는 것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3학급 등 총 18학급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자율형 2학급은 올해까지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1·2차 공모와 심사를 거쳐 2024학년도부터 운영할 8개 신규 한국어학급을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감초병설유, 양정초, 삼덕초, 녹산초, 금양초, 광남초(2학급), 반송중이다.

특히, 유치원 한국어학급을 처음 지정해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에서 유아 발달단계에 고려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한국어 구사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 문제다"며 "앞으로 다문화학생이 언어적 어려움 없이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센터형(1학급), 위탁형(5학급) 등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학급도 운영하며, 다문화학생이 언어 장벽으로 학습·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에 힘쓰고 있다.

윤근수/기자

울산교육청,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 전 종목 수상

울산교육청, 제과제빵 등 8개 종목에 참가

울산광역시교육청 선수단이 '2023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에서 은상 1명 등 출전한 전 종목(8개)에서 수상을 했다.

울산선수단은 특수학교 청각장애 제과제빵 종목에서 은상을, 특수학급 지적장애 한지공예 종목에서 동상을 받았다.

특수학교 분야 청각장애 바리스타, 시각장애 점역교정, 특수학급 분야 지적장애 과학상자조립, 사무행정 종목에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특수학급 분야 지적장애 사무용품조립과 스티커붙이기 종목에서도 대회장상을 받았다.

지난 9월 20~21일 전라남도 여수에

서 열린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은 감각장애(시·청각)·지체장애 학생들이 직업 기능을 높이고 자아 성취감을 고취하고자 전국 단위 규모로 진행됐다.

이 대회에 울산선수단은 제과제빵, 바리스타, 점역교정, 사무용품조립, 스티커붙이기 종목에 특수학교 학생 5명이, 과학상자조립, 사무행정, 한지공예 종목에 특수학급 학생 3명이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는 "대회 준비 과정이 학생의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자신감을 느끼고 2년 뒤 더 나은 실력으로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황규진/기자





경상북도
GYEONGBUK-DO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UNESCO

Korea in Korea





경북 세계유산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외연확장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력),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하회권 퀸스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핵심과제

외연확장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력),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하회권 퀸스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충남도, 전북과 '초광역 상생 협력' 나선다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탄소중립 실천·인프라 확충 등 공조키로

충남도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서해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전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기존 충남·대전·세종·충북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지난해 9월 경기도와 맺은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상생 협력 업무협약'에 이어, 초광역 협력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홍 지사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상생 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자치권과 지방분권 강화, 초광역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 도는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 공동 사업 등을 발굴·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 도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또 종교 성지 순례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관광자원 상호 홍보 등에 협력하며, 지역 약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글로벌 에너지 전환 대비 수소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양 도는 이에 더해 지역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도 함께 힘을 모은다.

이밖에 지역 현안 사항과 중장기 상생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각 합의 내용과 관련한 세부 사업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홍 지사는 "충남은 역사와 문화, 정서를 함께하고 있는 전북과 초광역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

네스코 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된 충남 공주·부여와 전북 익산 등 "백제 역사문화 활성화와 서해안 기반 관광 자원 공동 개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선 익산 연장 등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을 빠르게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과 전북은 이번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충청권이나 전라권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 긴밀하게 연결된 전북과 충남은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왔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와 관광, 농업,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기술혁신대전과 경영혁신대회로 분산 개최하던 행사를 통합(10.17~18)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주제(테마)로 하는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부산 벅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2000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과 2018년부터 개최하던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를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EXPO) 유치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부산으로 옮겨서 개최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혁신형 중소기업, 세상을 바꾸다!"라는 구호(슬로건) 하에 급변하는 기술·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①탄소중립·환경·사회·투명 경영(ESG), ②세계(글로벌), ③기술개발(R&D)혁신, ④디지털, ⑤기술보호의 5대 중점분야별 기술·경영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혁신대전의 세부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행사인 '중소기업 혁신 유공 시상식'은 이영 장관이 참석해 기술·경영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관계 유공자를 시상할 예정이다.

포상은 훈장(3점), 포장(4점), 대통령 표창(20점), 국무총리표창(30점), 장관 표창(171점) 등 총 228점이 수여된다.

구분	내용	주요프로그램
공식 행사	유공자 시상식	유공자 시상식 (10/18, 14:00-16:00)
	메인무대	유튜브 생중계(@kinnashow)
전시	테마정책관	기술·경영혁신 중점분야 소개
	혁신기업 전시관	중점분야별 혁신기업 전시관 구성
	상담 & PRESS	비즈니스 상담 및 미디어 공간 구성
혁신기술 컨퍼런스	탄소중립-ESG	탄소중립 컨퍼런스 (10/17, 13:00-17:00)
		세미나
		M&A·상장투자(IR)포럼 (10/17, 14:00-17:00)
		회의실 214+215+216호
		기술·경영혁신 컨퍼런스 (10/18, 09:30-12:00)
	글로벌	세미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 컨퍼런스 (10/18, 10:00-13:00)
		회의실 216호
	R&D혁신	스케일업스 IR 컨퍼런스 (10/17, 14:00-17:00)
		회의실 216호
R&D혁신 컨퍼런스 (10/17, 15:00-17:00)		
디지털	세미나	
	기술·기능인재 경진대회 (10/17, 13:00-17:00)	
기술보호	세미나	
	디지털 전환(DX) 컨퍼런스 (10/18, 10:00-13:00)	
	세미나	기술보호 컨퍼런스 (10/17, 13:00-14:30)
	세미나	

부대행사로 기술·기능 인재 경진대회, 인수합병(M&A) 및 상생 투자를 위한 아이알(IR) 투자유치(피칭) 공개 토론회(포럼), 확장(스케일업) 팀스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각종 발표회(세미나) 및 학술회의(컨퍼런스)도 진행한다.

'전시·홍보관'은 5개 중점분야별 탄소중립·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세계

(글로벌), 기술개발(R&D)혁신, 디지털, 주제(테마)정책관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주관기관별 전시·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혁신 성과를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는 공식 유튜브 경로를 통해 생중계 및 누리집에서 동시 송출된다.

최광수/기자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등 2개리 일부 2,328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등 2개리(본·완오리) 일부(2.33km²)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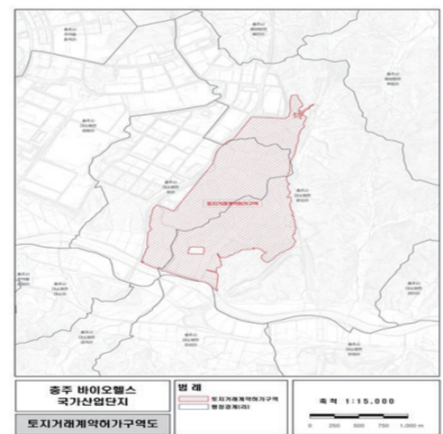
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충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km²,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km² 등 모두 4개 지

구 11.87km²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16%에 해당한다.

고정화/기자



남원시의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이 미국에도 펼쳐진다!

남원시와 미국 마리나시 자매결연 체결!

남원시가 미국 마리나시와 앞으로 문화와 미래산업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남원시는 10월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리나시 현지에서 마리나시의 초청을 받아 이순택 남원 부시장과 브루스 델가도 마리나시장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현철 부총영사, 오영수 한인회장 등 ACOM(마리나시 아시안 공동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서에는 두 도시 간 추후 상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및 하나의 도시를 뛰어넘는 양 국가 사이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정보 공유 협력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마리나시가 처음 남원시에 자매결연 체결 제의를 했는데

마리나시 인구 중 약 13%인 3천명의 한인교포가 거주하여 고향 대한민국 그중에도 가장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남원의 매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리나시는 인구 2만 3천명으로 규모는 작지만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인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회사 준비 예비애이션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작지만 강한 도시로 불리고 있다. 특히 남원시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준비 예비애이션 회사를 방문,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리나시를 방문한 이순택 남원 부시장은 "마리나시와 남원시의 역사적인 자매결연 첫걸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두 도시의 강점이 공유되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금년에는 우리 시가

방문을 했지만, 추후 꼭 마리나시를 남원에 초청하여 남원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예천군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예천 사과

물 좋기로 소문난

醴泉

鳳凰, 非醴泉不飲(莊子)
봉황은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장자)

단술 에 샘 천

예천 참기름

예천 쌀

예천 한우

예천장터

검색창에서 예천장터를 검색하세요!

주문 및 상담안내 : 054)650-6280

<http://www.ycjang.kr>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보배섬 진도**

시·서·화·창
민속문화예술의 고향, 보배섬 진도

2023 진도군 보배섬 문화예술제



10.21 토 ~ **11.5** 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일원

주최 Jindo 진도군
주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